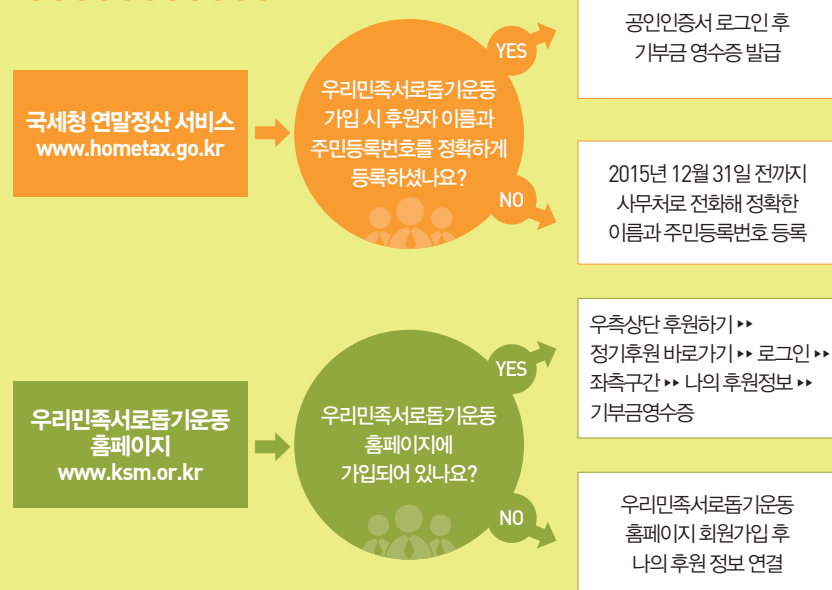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쏟아주시는 관심에 깊은 감사인사 올립니다.

2015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이 전환되었습니다. 2016년 부터는 우편물 분실을 예방코자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조금 더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을 아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 우편발송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꼭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사무처 : 02 - 734 - 7070)



www.ksm.or.kr
www.facebook.com/ksmseoul



2015 송년호 vol. 8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목차 Contents

- 03 권두언 2015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새로운 비전을 위해
- 04 화 보 다시 꿈꾸는 2005년의 꿈
- 06 특 집 분단 70년을 보내며
- 08 사업보고1 평화축구 코치 트레이닝
- 10 사업보고2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
- 12 사업보고3 도서관 사업 총괄
- 14 사업보고4 후원자 지원현장 방문 프로그램
- 16 사업보고5 불고그라드 활동
- 17 사업보고6 인턴후기
- 18 사업보고7 만월대의 가을
- 20 우리함께 영화<두만강>
- 22 사업일지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3 후원자 명단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발행인 영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편집인** 강영식 **발행일** 2015년 12월 **주소**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전화 02) 734-7070 **팩스** 02) 734-8770 **메일** ksmseoul@ksm.or.kr **홈페이지** www.ksm.or.kr **디자인 및 인쇄** 마디커뮤니케이션(02-488-3002)

고문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공동대표** 영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길정우, 김문찬, 김병준, 김세영, 김영수, 김필건, 무원, 박남수,
박준영, 손진우, 우희중, 원혜영, 이수구, 이수덕, 이용선, 이재술, 이흥우, 전정희, 정석주, 중호, 천정배, 최남섭, 최대석, 홍창진 **감사** 김영환,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권두언

2015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새로운 비전을 위해

어느덧 2015년 한 해가 가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힘을 모아 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늘 진취적이고 보람있는 일들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초 신년인사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은 한반도의 분열과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여는 역사적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였습니다.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대북 지원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대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난 8월 일촉즉발의 남북간 군사적 위기 상황이 단적으로 말해주듯 남과 북은 여전히 갈등과 긴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 한해도 속절없이 가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은 인도적 대북지원이 시작된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로는 70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만으로 한반도의 분단 해소와 평화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인도적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해와 같이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활동은 여전히 활로를 열지 못하였습 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의 정상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Bab 캠페인을 통한 북한 어린이지원은 해외본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더 많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한민족 어린이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헌 교과서 수거활동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 올 해에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1,865여개 학교에서 동참해 주셨고, 그 결과 11월 열두번째 중국 조선족학교 네모상자 도서관을 준공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평화교육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고등학생들과는 연변과 조중 접경지역을 방문한 후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초등학교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북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마지못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곳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최근 몇 년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 입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11월 초에는 2박 3일 동안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0여년 간 대북지원에 헌신해 온 국내의 활동가,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사업을 평가하고 지원 사업이 한반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의 염원을 담아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의 동력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동포애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동포를 돕고자 하는 관심이 약화된 것은 단순히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축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품격, 실천적 동포애가 약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더 노력하지 못했음을, 더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음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반성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6년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만 스무살이 되는 해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은 스무살 성인이 되는 우리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여전한 우리의 몫입니다. 내년 창립일 6월 21일에는 20년간 우리민족을 성원해 준 회원과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루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그간의 활동을 망라한 20년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하고자 하니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과 북의 상호협력과 평화공존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동포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사업의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대북지원의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며 후원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함께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11월 17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10년 전 정성수액약품공장 건립과 협동농장현대화사업을 통해 우리가 꾸었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꾸던 모든 분들과 함께 내년 201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20주년을 준비하고 이후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과 북의 협력과 평화를 향한 길을 여전히 걷겠습니다. 올 한해도 후원의 밤에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이혜경 아나운서



- ① 시작공연, 소망재활원 밤별연주팀 천사들의 하모니
- ② 인사말, 이일영 상임공동대표
- ③ 격려의 말씀,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
- ④ 축하공연, 장새남 연주가 유정우
- ⑤ 축하공연, 피아니스트 정혜연
- ⑥ 새길교회, 북한어린이급식지원 성금 후원
- ⑦ 감사인사,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분단 70년을 보내며

최완규 상임공동대표에게 듣다(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분단 70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질문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다.

손종도 부장 _ 기획홍보팀



분단 70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2015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였다. 35년간의 일제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이는 곧 분단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분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분단이 언제 해소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의 한 통계에 따르면 한반도 남쪽 주민의 약 92%가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이다. 이는 곧 분단 이전에 태어나서 지금



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8%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한반도 북쪽에서는 주민의 95%가 분단 이후 출생한 사람들이다. 북쪽에서는 분단 이전에 태어나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5%에 그친다. 7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분단 70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분단의 세월이 71년이 되는 내년에도 우리는 분단 극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최완규 상임공동대표를 찾았다. 최완규 대표는 지난 여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지금은 신한대 석좌교수로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2월 10일 의정부에 위치한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실에서 이루어졌다.

— 분단의 세월이 70년을 넘어 이제 7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분단 70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해방 이후 3년의 명예와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해방 3년의 상황과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방정국 3년을 보면 선 정부수립 후 통일하겠다는 정치 세력들이 한쪽은 미국을, 다른 쪽은 소련을 업고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일종의 성공을 한 셈 이지. 논리적으로 보면 결국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그 틀에서 나온 게 아닌가. 어느 한쪽이 먼저 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을 시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 그 유산을 벗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제2의 한국전쟁이 가능한 구조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한편 당시엔 선통일 후 정부수립론자들도 존재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들은 현실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을 도외시하고 꿈만 가진 명분론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오직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만 그들의 정책 실패를 평가 할 수 있을까? 그들의 문제의식이나 뜻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성찰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분단 70년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 대표님은 지난 1977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학계에 발을 담그신 이후 37년을 연구자로 보내오셨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사회의 북한 연구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0년대 북한 연구는 내막을 폭로하는 게 다였어요. 정치적 입장을 광장히 투영시킬 수밖에 없었지요. 60년대 학계에서도 북한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북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이 주로 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연구의 자유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지요. 자료부터가 우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불온간행물이라는 표현을 썼었지요. 지금도 특수자료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북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게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예요. 그렇게 북한 연구는 치우쳐 있었어요. 맹목적인 반공주의와 환상적인 교조주의가 한쪽은 좌로, 한쪽은 우로 왜곡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죠. 80년대 말 북한 방문기가 50여종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도 일종의 극단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북에 다니면서 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 역시 북에 대한 인식 자체에 의해 재단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 지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 대표님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조기 퇴임하시고

이곳 신한대의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탈분단’과 ‘경계’의 의미는 무엇 인지요?

“탈분단의 의미는 지금 당장을 통일을 하자는 이야기라기 보다는, 완고한 분단 체제가 있으므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부정적 현상을 극복해 보자라는 의미예요. 탈분단을 통일과 등치 시키는 게 아니죠. 경계는 피아를 구분하거나 만나지 않고 대립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면서 확인하고, 협력하자는 의미예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갈등하는 경계가 아니라 교류협력 등을 활성화하고 휴전선 인접지역을 어떻게 공동의 장소로 만들까 고민하는 등, 교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방법을 찾자는 것이지요. 전세계 사례들을 한반도 맥락 속에서 풀어 보고 싶어요. 분단이 70년을 넘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지요.”

— 분단이 70년을 넘었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단 극복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 합니다. 저는 가끔씩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주장도 하곤 하는데, 이는 통일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라 통일의 양태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예요. 남과 북이 우선 평화롭게 사는 것부터 논의를 해야 하죠”

분단 70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최완규 대표는 다른 자료에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 북한은 통일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소통과 관계맺음을 통해서 통일 코리아가 추구해야 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협력의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느 일방의 변화를 강제하는 정치경제적 통합보다는 먼저 상호변화를 통한 사회문화적 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표가 만든 탈분단경계문화 연구원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남과 북은 분단된 채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각각 지내왔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분단이 해소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분단과 분단 극복에 대한 우리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분단 70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질문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구, 평화와 평화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축구 코치 트레이닝’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의 활동을 본받아 새롭게 준비한 코치트레이닝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의 개최와 함께 국내 평화교육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두리 간사 _ 정책팀

아시아 유일의 평화축구를 준비하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쬘던 8월, 60명의 사람들이 그늘막 하나 없는 서울대학교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바로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었던 <스포츠를 통한 평화축구 코치 트레이닝>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화축구의 본토인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의 경우, 재학생, 지역 교사, 평화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화축구 코치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받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매년 상·하반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개최와 동시에, 좋은 프로그램에 걸맞은 역량 있는 국내 평화교육자를 양성하고자 이번 코치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20시간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서 날아온 10명의 브라이튼 대학교 코치들은 피곤한 와중에도 도착하자마자 회의에 임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는 물론, 이스라엘·북아일랜드·아일랜드·잠비아·체코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축구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코치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코치가 즐거우면 배우는 사람도 즐겁게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조기 마감된 이번 코치트레이닝에는 대학(원)생, 교사, 평화활동가, 연구자 등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20대에서 50대까지의 폭넓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형형색색의 참가자 명단을 보며 평화에 대한, 평화교육에 대한 갈망은 직업과 세대를 막론하고 강렬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날 8월 7일, 어색하게 모인 60명의 사람들은 오전 동안 서울대 이찬수 교수와 영국 코치진들의 강의를 들은 후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던 사람들도 코치들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이다보니 어느새 별다른 지시 없이도 어린아이들처럼 해맑게 웃으며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아침부터 운동장에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비오듯 땀을 흘리면서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고, 시원한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수박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나영일 교수와 코치들의 오후 강의까지 모두 듣고 나니 어느새 찾아온 페스티벌 준비. 셋째 날에는 이를 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아동들을 직접 코칭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시간을 잊고 토론에 집중했습니다. 실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칭은 좀처럼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다들 열심히 준비하신 덕분에 마지막에는 모두들 즐겁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치트레이닝을 진행하며 확신하게 된 한 가지는, 평화교육은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코치진이 즐겁게 임하니 코치트레이닝 참가자들도 어느새 나이도, 체면도 던져버리고 즐겁게 뛰고 웃었습니다. 코치가 즐거우면 배우는 사람에게는 그 즐거움이 전달됩니다. 즐거움은 삭막한 땅에 내리는 비처럼 사람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물기를 잘 머금은 땅에는 존중과 책임감, 배려와 포용이라는 새로운 싹이 움튼다. 평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새싹들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널리널리 퍼져나가 숲을 이루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2016년에도 열심히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나기를, 우리민족은 바라봅니다.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 2015년 11월 3일~5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분단 70년, 대북지원 20년을 맞이하며 대북지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 마지막날에는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인도적 지원과 장기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양두리 간사 _ 정책팀



대북지원에 대한 관심 속 진행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2009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매년 주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하 북민협)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통일부가 후원하였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분단 70년, 대북지원 20년을 맞이하여 대북지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개회의, 비공개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으로 구성했습니다.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로 진행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3일 공개회의에는 25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개회식에는 북민협 양호승 회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참석하여 개회사와 환영사 축사를 해주셨고, 오후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특별연설이 있었습니다. 총 세 세션으로 구성됐던 첫 날 행사에서는 먼저 대북지원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지원방향을 모색하며, 대북지원이 어떻게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또한, 각 세션은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일 비공개회의는 여의도의 글래드호텔 볼룸홀에서 열렸습니다. 80여명의 국내외 대북지원 활동가,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는 서로의 대북지원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향후 대북지원에서의 한국 지자체들의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세션, 그리고 오후에는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앞으로의 실행 목표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는 분과 회의의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끝으로 <공동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

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5일에는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내외 참가자들은 “참가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대북지원이 계속 축소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사회가 단순히 대북지원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인도적 지원과 장기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북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대북지원이 결국 한반도 평화와 밀접히 관련돼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NGO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북한이 정부 간 대화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민간 교류협력 사업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의 참가자이자 대북지원 원년부터 활동해온 스위스국제개발청 평양사무소장 카타리나 젤버거는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들을 개방적인 마인드로 이끄는 주요한 통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조개입에 따라 다양한 외부 사람과 접촉하는 북한 주민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북한 공무원과 행정당국도 이제는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대북지원은 단순히 식량 부족 해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는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했던 한 축이었음을 상기하면 대북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끝으로 국제기구와 정부, 지자체, 전문가, NGO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하며 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네모상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있는 훈춘소학교 학생들

올해 3개 조선족 학교에서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

중국 조선족 학생들을 위한 네모상자 도서관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흑룡강성 오상시와 상지시, 길림성 훈춘시 등에 학생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지식을 키워줄 아름다운 터전이 만들어진 것이다.

홍상영 사무국장

중국 조선족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네모상자 도서관이 연이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5월20일 흑룡강성 오상시 조선족소학교에 네모상자 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10월9일에는 길림성 훈춘시의 훈춘시제1실험소학교에 그리고 11월13일에는 흑룡강성 상지시 조선족중학교에 네모상자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오상시는 흑룡강성 하얼빈에서 남쪽으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이며, 상지시는 역시 하얼빈에서 서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선족동포(재중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훈춘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속한 도시

입니다. 최근 장춘과 훈춘간의 고속철도연결, 북한의 나진 선봉 지역으로 통하는 물류기지, 중국정부의 경제개발구 지정 등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상시는 2013년 오상시중학교 도서관 개관에 이어 소학교까지 도서관이 만들어져 소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도서관 활용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오상시조선족소학교와 상지시조선족중학교는 어린이가 행복한나라(상임대표: 박남수)가 후원에 참여하였으며 훈춘시제1조선족소학교는 신한은행이 후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추옥단
오상시조선족소학교
교장

우리 학생들이 날마다 책을 읽으며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꾸준한 독서습관으로 저마다의 미래를 발견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의 토대를 쌓아가도록 하며 그리고 감동이 있는 곳,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도서관이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운영을 잘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리지민
오상시조선족소학교
학생대표

전에 우리는 날마다 공부가 끝나기만 하면 곧장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활개치며 놀기만 하였고 스마트폰에 뉘를 빼앗겨 금쪽같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덧없이 흘러보낸 지난날과 작별할 것입니다. 좋은 책과 친구하고 아담한 “네모상자 도서관”의 단골이 되려고 합니다. 풍당 책속으로 빠져들어 책속에서 성장하고 세상을 넓혀가려 합니다.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장춘 룽원구소학교에서 진행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이 지난 11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시 룽원구조선족소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룽원구조선족학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지원한 ‘네모상자(네가 꿈꾸는 모든 것을 상상해 봐! 자유롭게)’ 도서관이 지난해 개관한 곳입니다.

이번 연수에는 중국 동북 3성의 30개교 36명의 도서관 담당 교사와 교장선생님 등이 참여했습니다. <꽃피는 학교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후원하고 길림성교육학원 민족교육학원이 주최, 연변화동정보교류유희회사가 주관했습니다.

중국 조선족학교의 도서관 담당 교사와 교장선생님, 교도주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도서관 운영 연수는 2013년 이후 3번째로 중국에서 열린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중국 조선족학교에 ‘네모상자’ 도서관을 지원하는 한편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 2회 도서관 운영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엔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6명이 한국을 방문해 연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수의 한국인 강사진으로는 조월례 경민대학교 독서문화컨텐츠학과 겸임교수와 김경숙 학도넷(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사무처장, 이대건 고창 책마을해리 총장, 이영주 서울 연가초 사서교사 등 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 운영방식, 도서관 활성화, 독서교실 계획 세우기, 독서활동 다양화 등 다양한 내용을 강의와 워크숍 등의 방식으로 소화해 현지 선생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책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어린이급식사업 및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을 후원하고 계신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한민족 나눔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지원현장 방문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간 중국 조선족자치주 연길, 훈춘, 도문 일대를 둘러보며 진행하였고, 갈릴리교회, 권정생 어린이지원재단, 서울시교육청 등 후원기관 관계자 15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정희 _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훈춘소학교 신축 도서관에서 방문단 전체 기념촬영



훈춘소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열어보며



연변, 너무나 익숙해서 더 알 만한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연변 방문이 확정되고 나서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조선족이 주로 살고 있는 중국의 자치구역이라는 정도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왜 난 연변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곳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나와 뿌리가 같은, 통역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 민족이라서가 아니었을까?

분단의 아픈 현실을 마주하다

그 연변에 나는 서울시교육청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하는 책 나누기 사업의 현황을 현지에서 파악하기 위해 가게 되었다.

연변에 도착하고 우리가 바로 찾아간 곳은 멀리서나마 북한 동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두만강 접경이었다. 휴전선만 넘으면 바로 북녘인데, 멀고먼 남의 땅 연변에서 동포들이 생활하는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 분단의 아픈 현실을 실감나게 했다.

이어서 방문한 훈춘시제1실험소학교는 훈춘에서도 제법 크고 이름이 있는 소학교였다. 이곳은 며칠 전 국내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이번엔 우리는 도서관의 서가를 채울 수 있는 책들을 학교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도서관의 핵심은 책

새로 만든 도서관은 정말 예쁘고 깨끗하고 쾌적했다. 어느 곳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 도서관에 아마도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도서관의 핵심은 결국 책에 있는 것이다. 책이 부족한, 읽을 만한 책이 없는 도서관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새롭게, 멋지게 단장을 하고 문을 연 이 도서관의 서가도 많이 비어 있었다.

사실 책만큼 강하고 확실하게 민족의 동질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조선족 아이들은 우리 책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와 가치관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갖추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행사나 화려한 선전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연변을 떠나는 날 바쁘게 들른 연변제일 특수교육학교의 도서관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십여 년 이상 지난 듯 낡은 우리말 책들로 채워져 있는 서가를 보는 것은 너무도 민망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과 이질성이 높아질 것을 걱정한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바로 ‘책’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도서관이야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책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조선족학교 교장선생님의 간곡한 이 부탁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이번에 방문한 두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족학교 도서관에 우리 책이 가득 채워지는 날을 상상하면서 앞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하나의 ‘코리안’ 문화를 기억하고 표현합니다

러시아 볼고그라드에는 일제강점기부터 강제이주, 정착, 추방, 재정착 등에 이르며 여전히 아픈 역사를 간직한 채 힘들게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를 간직하고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지원하는 고려인 한글문화학교는 현재 ‘미리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재 간사 _ 지원사업팀

제12회 한글문화축제,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 10일 ‘미리내’에서는 러시아와 한국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제12회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약 600여 명의 인파가 몰렸고, 볼고그라드 인근 지역의 총 45개 고려인 단체들이 참여를 하여, 부채춤, 사물놀이, 전통혼례 재연, 난타 등 다양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도 불고 있는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문화축제는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리내 학생들, 한국어 말하기 실력 뽐내

축제 이틀날인 10월 11일, 볼고그라드 고리키 도서관에서 ‘미리내’ 학생들이 그 동안 배우고 익힌 한국어를 지역의 고려인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뽐내는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평화를 위한 시”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평화롭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직접 작문한 시를 낭독하였습니다. 5명의 학생들이 발표를 맡았으며, 비록 문법과 발음은 서툴더라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따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문화축제 부채춤, 사물놀이 공연팀



한국어 발표 중인 미리내 학생

— INTERVIEW

스베들라나 리
(볼고그라드 주민)



우리는 한국문화로 공연을 여는 이들의 활동에 항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행사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들에게 우리의 고국의 문화를 소개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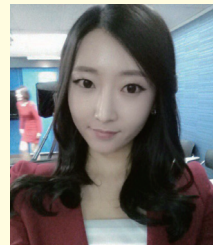
이고르 김
(주최측 ‘미리내’ 대표)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살아온 지 이미 15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서 보존·계승하고 있는 문화는 분단 전 하나의 ‘코리안’들의 문화입니다. 하나였던 문화는 분단 후 남과 북에서 각각 변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의 ‘코리안’의 문화를 공연을 통해 표현하고자 합니다.



“인턴 경험은 제 평생 절대 잊지 못할 값진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홍 세 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4학년)

저는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갈팡질팡하던 중 우연치 않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턴 면접을 준비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단체의 비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고 그러면서 제가 하게 될 업무에 대한 더 큰 열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저는 국제학부 학생으로서 우리민족에서 국제회의 준비 인턴으로 활동하며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보다는 배워가야 할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리고 우리민족 가족들과 함께라면 즐겁게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우리민족 가족들은 각자의 일에 열정을 다하고 서로의 담당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직접 일을 배우고 부딪히며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예비 직장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아가 그 일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발걸음일 때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지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국제학을 전공하며 동북아 정세에 대해 나름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이와 관련된 실무를 시작했을 때는 또 다른 실상을 마주했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여했던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보고 들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민족이 처해있는 가슴 아픈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같은 민간기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의 인턴 경험은 제 평생 절대 잊지 못할 값진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우리민족 실무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가족들과 함께 한 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윌슨 멜보스태드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윌슨 멜보스태드라고 합니다. 25살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로스쿨 학생입니다. 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2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단체와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매우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한국어 실력이 겨우 7살(좋은 때죠!) 어린이 수준인데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모든 직원들이 많은 활동에 저를 포함시켜 주고 제가 이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성공관대학교 로스쿨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저의 경험을 넓힐 단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찾은 셈이 됐습니다.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 준비과정이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다양한 활동에 제가 다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끊임없이 지적인 자극을 받았다고 해야겠네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일하면서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NGO와 지방자치단체, 북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범위도 매우 넓다는 점에 매우 놀라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여전히 긴장돼 있기는 하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같은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턴 생활에 대한 후기를 요청받았을 때 처음으로 든 생각은 저의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 이 특별한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됐습니다. 저의 모국어인 영어로 말을 하더라도 제가 느낀 이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점예요. 저는 곧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경험하고 배운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가족들과 함께 한 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윌슨의 인턴후기 영어 원문은 우리민족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ksm.or.kr)

만월대에서 만나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꿈

만월대의 가을 하늘은 청정했다. 성균관 은행나무는 천년 세월에 버금가는 정취를 풍겼다. 오색빛깔 가을 내음이 물씬했다. 남북 문화적 교류의 산실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다녀왔다. 노천명이 읊었던 〈만월대〉를 음미하며 기행을 시작한다.

강지현 간사 _ 기획홍보팀



방북 그 떨리는 순간

이른 아침 7시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개성 방북! 북북행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만월대 유적을 보려는 학자들의 눈빛엔 별빛이 종종 비친다. 개성이 고향인 어르신은 마치 아이처럼 방긋 웃으신다. 개성관광 차량은행 경험을 많은 기사님의 방북답을 한참 듣다보니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 기사님은 오랜만이라며 반가움과 동시에 아쉬움을

내비친다. 그의 긴 한숨이 남북교류가 얼마나 오래도록 멈춰 있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마침내 북으로 가는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북측 초병들이 보이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북측출입사무소에 도착하고 수속을 마친다. 북측 안내원이 차에 올랐다. 어색하다. 하지만 이내 분위기는 밝아진다. 북측 안내원이 개성 공단에 대해서, 개성 역사에 대해서, 선죽교와 낙타교에



대해서 설명한다. 북측 안내원의 안내는 한편의 잘 짜여진 공연을 보는 듯하다. 안내와 설명도 즐겁지만, 개성 시내를 보는 것은 더욱 신기하고 즐겁다.

줄 맞춰 걸어가느 소학교 아이들, 도로 가득한 자전거, 개성 시내느 무척 여유로워 보였다. 자동차 매연이 가득한 우리의 도시와 또다른 느낌이다. 그렇게 개성 시내를 지나서 만월대 발굴 전시회가 열리는 성균관으로 들어섰다. 남북 참가자들이 서로 섞여 앉아있는 개막식 식장에 차가운 긴장감은 없었다. 청명한 날씨만큼이나 밝고 화기가 돌았다. 북한에 대하여, 북한 사람에 대하여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새삼 자문하게 되었다.

만월대 역사속 통일의 현장

만월대로 이동했다. 만월대는 고려의 왕궁터다. 만월대라는 이름은 조선건국 후 폐허가 된 고려 궁궐터의 산세와 땅 모양이 보름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처음 참가단을 맞이한 것은 웅장한 33층 돌계단이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는 극락으로 가는 33개의 층을 형상하여 궁궐 입구의

돌계단을 33층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계단을 오르니 드넓은 만월대 터가 펼쳐졌다. 고려라는 통일 국가의 유적이기도 하며, 동시에 남북 발굴대원이 서로 협력해 땀 흘리며 작은 통일을 이루어낸 장소일 것이다.

만월대 뒤로는 송악산이 보인다. 산의 능선을 보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임신한 여인이 누워있는 모습이다. 산세가 참 포근하다. 그래서 개성 사람들은 어머니 산이라 부른다 한다. 만월대 참관을 끝내고 점심식사를 할 민속여관으로 이동했다. 11첩 양반상에 호박인삼밥이 나왔다. 무척이나 달큰한데 끝맛은 인삼향이 가득했다. 전통한식 요리가 이토록 맛있을 수 있구나 싶었다. 식사 후 많은 사람들이 북측 상품 판매소를 들렀다. 유명한 고려인삼제품과 송악 소주, 대동강 맥주 등 다양한 주류와 고추장, 말린 명태까지 팔았다.

마지막 장소로 이동했다. 왕건릉이다. 고려 태조 왕건과 신혜왕후 유씨를 함께 묻은 단봉 합장릉이다. 왕건릉 참관은 해설강사로 인해 더욱 유쾌했다. 재치있는 솜씨로 매회 참관이 끝날 때마다 그녀는 큰 호응을 받았다. 그렇게 웃고 소통하다가, 만월대 참관이 끝날즈음이었다. 헤어질쯤 이면,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은 서로 웃고, 같이 사진찍고,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친구가 되어있었다.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다리는 먼곳에 있지 않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도적 지원과 문화적 교류가 있다. 만월대 참관은 수많은 남북 친구들을 만들어 냈고, 이들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인도적 지원이 활발해지고, 남북 문화적 교류의 문이 더 넓어져야 할 이유다.



흑한의 겨울 속에 놓인
한민족의 현실을 그린 영화

두만강

‘우리함께’ 두 번째 콘텐츠는 영화 <두만강>이다.
각자의 경계를 넘어서는 한민족의 다층적인 모습을
살피고, 그 경계를 허무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본다.

강지현 기획홍보팀 간사



한민족 마음의 경계를 넘어

마음의 경계를 넘기 위해

공공 언 두만강의 풍경, 잔잔하고 차가운 바람이 분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까지 내내 눈으로 뒤덮인 영화
<두만강>은 흑한의 겨울 속에 놓인 한민족의 현실을 상상
하게 한다.

하지만 북·중 접경지역 조선족 마을에서 살아가는
창호의 가족은 따뜻하다. 경계를 넘어 '강 건너온 이들'을
내쫓지 않고 먹을거리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한다. 창호의
가족도 풍요롭지는 못하다. 창호 어머니 또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경계 너머 한국에 가있다. 창호와 병어리 누나
순희, 북녘 고향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까지 창호네 가족
들은 경계를 넘어온 형제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숨기지 않
는다.

창호의 친구 정진도 '두만강'이라는 경계를 넘어온다.
하지만 두만강은 북녘사람에게만 드러운 경계가 아니었다.
북녘에 고향을 둔 할아버지는 창호에게 당부한다.

할아버지: 창호야, 내 죽으면 이따가 물어 달라

창호: 왜 여기도 물어달랍니까?

할아버지: 앞에 두만강이 보이지 않니?



창호 할아버지와 조선족 동포에게 두만강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의 장벽'이 되었다. 그렇게 두만강은 경계이자
장벽이 되고있다. 이처럼 우리민족은 산산히 흩어져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민족은 파편화되어 살고 있고,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산, 흩어진 우리민족의 현실

민족의 이산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와
분단이라는 두 가지 민족적 비극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추산 400~500만에 달하는 동포들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퍼져서 살고 있다. 그렇게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비극적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존재한다. 이처럼 파편화 된
우리민족을 묶어 민족적 동질감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이 러시아 볼고그라드와 조선족 동포들
돕는 사업을 진행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조금씩
나아가야 하는 남북통일의 길에서 이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포에는 수시로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조선족
사회 또한 삶이 팍팍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강 건너 사람들
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다. 창호도 정진에게 매정하게
대한다. 그러나 순희는 정진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창호를
타이른다. 순희의 따뜻한 마음이 통했을까, 창호는 정진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만, 드라마는 비극으로 흘러간다. 창호의
부탁으로 볼 차기 시합을 하러 왔던 정진을 창호의 친구가
공안에 신고하고, 정진은 체포된다. 눈앞에서 친구를 잃게
된 창호는 다급하게 지붕으로 뛰어올라간다.

그 아이를 놓으시오!

친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친구를 놓으
라 한 마디 외친 창호는 투신한다. 그리고 동생의 죽음을 직감
한 병어리 순희는 말문이 터지며 창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른

다. 그렇게 영화 <두만강>은 생사의 경계에서 죽음의 비극
으로 마무리된다. 영화의 마지막을 가득 채우는 순희의
외침은 이 비극이 형제의 비극 즉, 우리민족의 비극임을 상
징한다.

남과 북 그리고 조선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동포이지만
서로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먹고사는 문제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기에, 민족 동질감을 키워가는 역
할을 주도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은 꼭 막혀있다. 특히 2010년
한국정부는 '5·24 조치'라는 경계이자 장벽을 쌓아 올렸다.
빌리 브란트가 통일을 위해 장벽을 허물어뜨린 것과 대조적
이다.

재일동포 학자 서경식은 자신의 저서 '난민과 국민 사이'
에서 말한다. **“내가 말하는 민족은 혈통이나 문화나 민족혼
처럼 소위 민족성이라는 실체를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집
단이 아니다. 고통과 고뇌를 공유하면서 그 고통에서 해방
되기를 지향함으로써 서로 연대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1945년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분단되었다. 우리민족은
역사적 수난을 함께 겪었고, 그 역사적 과제를 함께 풀어야만
한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민족적 과제를
함께 풀어내려 하지 않으면 통일은 요원하다.

영화 <두만강>은 말한다. 마음의 경계를 넘기 위해 남한,
북한, 조선족의 경계에 막히기 보다, 배고픈 이에게 따뜻한
밥상 한 상 더 차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이다.

정명준	20,000	최화순	10,000	김재준	5,000
정미선	10,000	최희은	10,000	김경기	10,000
정민	5,000	추진혜	5,000	김정인	10,000
정범진	10,000	하순창	20,000	김종비	5,000
정성모	10,000	한장아	3,000	김종열	5,000
정성원	10,000	한길석	20,000	김신관	20,000
정석만	10,000	한나영	5,000	김진태	10,000
정성호	20,000	한복희	30,000	김창영	10,000
정수근	10,000	한다솔	5,000	김학제	10,000
정수진	10,000	한덕섭	20,000	김형순	20,000
정수현	5,000	한덕희	15,000	김호식	10,000
정연실(송경평)	30,000	한동학	10,000	류희용	10,000
정연용	10,000	한동휘	30,000	문용식	5,000
정연정	10,000	한두희	10,000	문태환	5,000
정연준	30,000	한상균	5,000	박귀순	10,000
정영철	10,000	한사점	10,000	박만승	10,000
정욱식	10,000	한성희	5,000	박미라	5,000
정인성	10,000	한승엽	10,000	박미숙	10,000
정인준	50,000	한윤구	10,000	박연규	10,000
정재민	10,000	한인숙	5,000	박용수	5,000
정재욱	20,000	한정화	10,000	박용천	10,000
정정태	10,000	한진옥	5,000	박윤훈	10,000
정지영	20,000	한창수	20,000	박재호	10,000
정지은	10,000	한창현	5,000	박종환	5,000
정진영	10,000	함용운	5,000	박태신	10,000
정찬광	10,000	하원동	10,000	박용열	10,000
정한성	5,000	허 정	10,000	서민원	5,000
정해문	10,000	한복령(문태대리점)	10,000	서해경	5,000
정현근	10,000	현유식	10,000	석상근	10,000
정홍성	10,000	현윤실	10,000	성도경	10,000
정희범	10,000	현윤애	10,000	성안호	5,000
조대엽	20,000	현중용	40,000	손상규	10,000
조대원	30,000	한지연	20,000	송기무	10,000
조만용	5,000	조영진	15,000	송민규	5,000
조민지	20,000	홍구표	30,000	송인규	10,000
조불현	20,000	홍기호	10,000	신민수	5,000
조석희	10,000	홍영기	10,000	신병선	10,000
조선아	10,000	홍미옥	30,000	안서윤	10,000
조성호	20,000	홍상문	5,000	안현성	5,000
조성희	10,000	홍 석	10,000	양기주	10,000
조영성	10,000	홍성건	10,000	양재원	10,000
조영석	10,000	홍숙희	20,000	양현석	10,000
조영식	10,000	홍윤정	10,000	영의료재단	10,000
조용진	10,000	홍재표	10,000	오명섭	5,000
조 윤	5,000	홍준석	10,000	오명광	5,000
조준호	10,000	홍진표	110,000	옥용호	30,000
조승원	30,000	홍성영	10,000	오강민	5,000
조현선	10,000	홍연선	30,000	우광택	50,000
조정순	10,000	최산능건	20,000	원영환	10,000
조준석	10,000	황계원	100,000	유미경	10,000
조창식	10,000	황대철	10,000	유방용	5,000
조영민	5,000	황명필	10,000	유재욱	10,000
조한민	10,000	황상주	30,000	유재호	10,000
조현 조윤	5,000	황재성	10,000	유종희	30,000
조현영	10,000	황재용	10,000	유현숙	10,000
조현호	20,000	황중철	10,000	육근범	10,000
조형준	20,000	황창규	10,000	윤영석	10,000
주관수	10,000			윤연수	10,000
주재길	10,000	통천음악원		이강찬	5,000
주현기	10,000			이경래	10,000
주혜영	10,000	(유세화관광여행사)	20,000	이규문	10,000
주혜옥	5,000	강동혁	10,000	이기훈	5,000
지선경	5,000	강병수	10,000	이명석	5,000
지준호	10,000	강성학	10,000	이명천	10,000
지훈초등학교	77,050	강신우	5,000	이명환	10,000
지현애	10,000	강진영	5,000	이민성	5,000
지영철	20,000	강철희	10,000	이상업	10,000
지영철	10,000	강해영	5,000	이상준	5,000
채보미	5,000	강해인	10,000	이상기	5,000
채송이	10,000	고영성	10,000	이양재	10,000
천경배	20,000	고지영	10,000	이연주	10,000
천정배	20,000	공지현	10,000	이명애	10,000
천경인	10,000	곽영한	10,000	이영숙	5,000
천건근	10,000	구윤경	20,000	이영환	5,000
최병희	20,000	김광년	10,000	이영휘	5,000
최사라	10,000	김광민	5,000	이윤범	10,000
최세문	20,000	김 구	10,000	이윤연	10,000
최순옥	10,000	김규진	5,000	이윤관	5,000
최순호	10,000	김근성	20,000	이종문	10,000
최순호	10,000	김근순	10,000	이종민	10,000
최시덕	10,000	김기곤	5,000	이종성	10,000
최영림	10,000	김기동	10,000	이주형	5,000
최영희	10,000	김기정	10,000	이지용	5,000
최우정	10,000	김동우	50,000	이진아	10,000
최유복	30,000	김두환	10,000	이진택	10,000
최윤식	5,000	김영중	10,000	이창용	10,000
최윤표	10,000	김문혁	10,000	이춘성	10,000
최재근	10,000	김택근	5,000	이한택	10,000
최재현	100,000	김성도	10,000	이현숙	10,000
최정숙	10,000	김수경	10,000	이희성	50,000
최정애	20,000	김수억	10,000	장라미아	10,000
최진옥	10,000	김순우	10,000	장수필	5,000
최철영	30,000	김연희	10,000	장현재	10,000
최태자	5,000	김영규	20,000	전병희	10,000
최필선	20,000	김윤철	10,000	전영길	10,000
최현주	20,000	김용근	10,000	장광수	5,000

정광식	5,000	김정원	10,000	오훈정	20,000
정기문	10,000	김정은	20,000	위은광	20,000
정병현	30,000	김정은	10,000	유근춘	100,000
정수준	10,000	김정현	20,000	유영광	10,000
정종원	10,000	김정환	10,000	유병현	20,000
정혜별	5,000	김재호	10,000	유성지	20,000
정홍구	10,000	김종관	10,000	유승희	10,000
조성탁	20,000	김종하	10,000	유연미	10,000
조승훈	5,000	김주애	10,000	유하경	20,000
조윤현	50,000	김지우	5,000	윤기홍	15,000
조우영	10,000	김진경	20,000	윤성진	10,000
조주원	5,000	김진식	10,000	윤여두	100,000
조지현	5,000	김태경	10,000	윤영선	50,000
주승순	5,000	김태진	20,000	윤자영	10,000
지태석	5,000	김태평	20,000	윤정현	30,000
재순화	10,000	김태형	10,000	윤지인	10,000
최경미	10,000	김학노	10,000	윤지현	20,000
최규원	5,000	김형숙	30,000	윤지현	30,000
최기천	5,000	김현수	10,000	윤혜정	10,000
최성수	10,000	김현철	10,000	이 규	10,000
최완옥	20,000	김광란	30,000	이남희	20,000
최의찬	5,000	김혜경	10,000	이리나	5,000
최재문	10,000	김혜경	10,000	이병국	30,000
최정환	5,000	김혜옥	10,000	이상준	20,000
최종철	5,000	김희국	10,000	이선정	10,000
최준수	10,000	남우주	10,000	이선호	20,000
최지현	10,000	노민하	10,000	이세은	10,000
탁병식	5,000	노을일	10,000	이수구	10,000
푸른초등학교	100,000	이수정	10,000	이수정	10,000
한성만	10,000	류덕영	20,000	이승환	20,000
함기문	10,000	류수빈	10,000	이승현	10,000
허귀석	10,000	류연식	10,000	이영동	10,000
하민석	5,000	류영준	10,000	이연수	10,000
홍성각	10,000	문성국	40,000	이문정	10,000
홍성근	20,000	문경숙	30,000	이원배	100,000
황금길	20,000	문성숙	20,000	이유열	10,000
황재택	10,000	문주성	10,000	이은혜	5,000
황지중	5,000	박강호	10,000	이일양	20,000
황현택	20,000	박경호	30,000	이일영	50,000
		박계용	20,000	이재명	10,000
		박계은	10,000	이재술	100,000
		박금희	30,000	이정미	10,000
		박동식	2,000	이정철	20,000
		박미경	30,000	이정준	10,000
		박민준	50,000	이재현	10,000
		박성일	10,000	이재훈	10,000
		박성희	10,000	이종섭	20,000
		박은영	20,000	이종학	10,000
		박은주	10,000	이재경	20,000
		박재규	100,000	이지수	30,000
		박재환	10,000	이학수	20,000
		박재숙	30,000	이향미	30,000
		박정식	10,000	이현재	10,000
		박정화	20,000	이현정	10,000
		박종근	5,000	이현주	10,000
		박종근	10,000	임원빈	5,000
		박종현	20,000	임형주	10,000
		박종현	20,000	장병식	10,000
		박진우	20,000	장병식	10,000
		박표근	10,000	전병권	10,000
		박형준	30,000	전종수	10,000
		박형준	20,000	전종수	10,000
		박용수	30,000	정미혜	10,000
		박성환	10,000	정성경	20,000
		박성희	5,000	정성희	5,000
		배기인	20,000	정수준	10,000
		백수진	10,000	정영자	10,000
		백정은	10,000	정영중	10,000
		변은경	10,000	정영옥	30,000
		사립의재널	5,000,000	정종철	20,000
		서연우	10,000	정지현	10,000
		서철원	30,000	정지혜	30,000
		설인혜	50,000	정창수	60,000
		성현주	30,000	정태은	10,000
		세마포어솔루션	20,000	정현철	10,000
		손아준	20,000	정혜숙	50,000
		손주현	200,000	정혜인	10,000
		송영옥	20,000	정화인	10,000
		송용식	10,000	정홍진	10,000
		송준식	20,000	정성화	10,000
		신대현	5,000	조은미	20,000
		신상목	10,000	조은희	30,000
		신순남	10,000	조재현	10,000
		심순남	10,000	조정아	20,000
		심순섭	10,000	조정화	20,000
		심재구	10,000	조진광	10,000
		심재원	10,000	조창훈	30,000
		심재원	10,000	조희갑	10,000
		안규식	10,000	채우혁	10,000
		안민식	10,000	최기수	30,000
		안재영	10,000	최성범	20,000
		안홍진	30,000	최숙희	20,000
		양한성	20,000	최윤실	10,000
		양홍철	5,000	최재원	10,000
		오동일	30,000	최태희	10,000
		오승현	10,000	탁종녀	10,000
		오이경	10,000	한겨레평일문화재단	1,500,000
		오대정	10,000	한국화학연구원	48,000

한기백	20,000
한석식	100,000
한동희	10,000
한애린	10,000
한원택	50,000
한인숙	10,000
한지섭	10,000
한정균	50,000
한하늘	10,000
허 설	10,000
하인용	10,000
하준용	10,000
현종스님	10,000
현성스님	100,000
황영자	30,000
황의중	10,000
황인식	10,000
황장권	10,000

불교그라운드	
강대균	10,000
공용택	50,000
김재기	10,000
김현미	50,000
나신경	5,000
방철호	20,000
선봉규	5,000
심한용	10,000
이동현	20,000
이한결	10,000
이한솔	5,000
최준혁	10,000
한은혜	5,000

해피빈	
숨은천사	500
KATIE	200

7월	
(주)대용파마텍	20,000
(주)리자스톤	5,000
(주)성상파워유틸리티	20,000
(주)세진산업개발	100,000
(주)신도세아타통신	10,000
(주)여행이아기	10,000
(주)창이앤지	30,000
(주)클린피에스엘	80,000
김복조	10,000
강경중	20,000
강기성	30,000
강남준	10,000
강달호	10,000
강동환	20,000
강병희	10,000
강신미	5,000
강삼부	10,000
강승원	20,000
강승희	10,000
강 신	10,000
강원호	20,000
강익범	10,000
강정미	5,000
강정음	10,000
강지영	50,000
강창구	10,000
강재원	20,000
강천일	20,000
강필희	10,000
강혜경	10,000
강희주	5,000
경인TRM	20,000
고권식	20,000
고기철	10,000
고병우	10,000
고봉근	10,000
고석주	10,000
고세람	10,000
고정수	20,000
고정환	20,000
고진광	10,000
고창훈	30,000
고희갑	10,000
곽동선	10,000
곽역신	10,000
곽재원	10,000
곽 현	10,000
구국모	10,000
구수영	10,000
구정희	20,000
관병오	10,000
관보미	10,000
관숙희	5,000

통천육아원

(유)세화관광여행사	20,000
강동혁	10,000
강병수	10,000
강성학	10,000
강신우	5,000
강진영	5,000
강철희	10,000
강혜림	5,000
강해임	10,000
고영삼	10,000
고지영	10,000
공지현	10,000
구윤경	20,000
김경년	10,000
김경화	10,000
김공련	5,000
김기 구	10,000
김구진	5,000
김근소	10,000
김기곤	5,000
김기동	10,000
김기정	10,000
김동우	50,000
김두환	10,000
김영관	10,000
김문혁	10,000
김삼택	5,000
김성도	10,000
김수경	10,000
김수익	10,000
김순우	10,000
김연희	10,000
김영규	20,000
김윤철	10,000
김용근	10,000
김재춘	5,000
김정기	10,000
김정민	10,000
김종비	5,000
김종열	5,000
김진과	20,000
김진태	10,000
김장영	10,000
김성택	10,000
김형소	20,000
김호식	10,000
류희용	10,000
문태은	10,000
문용식	5,000
박귀순	10,000
박만숙	10,000
박미라	5,000
박미숙	10,000
박연규	10,000
박용수	5,000
박용천	10,000
박윤훈	10,000
박이곤	10,000
박종환	5,000
박주영	5,000
박태선	10,000
박흥열	10,000
서민원	5,000
성도경	10,000
탁병삼	10,000
성완호	5,000
송상국	10,000
송기무	10,000
송민규	5,000
송인규	10,000
신민수	5,000
신범선	10,000
안서윤	10,000
안현석	5,000
양기주	10,000
양재원	10,000
양현석	10,000
영의료재단	10,000
오명섭	5,000
오현광	5,000
육용호	30,000
우광택	50,000
원형복	10,000
유덕조	5,000
김은향	30,000
유미경	10,000
유병용	5,000
유재욱	10,000
유재호	10,000
유종희	30,000
육근범	10,000
윤임석	10,000
윤연수	10,000
이강찬	5,000
이경래	10,000

이규문	10,000
이기훈	5,000
이영석	10,000
이영천	10,000
이영환	10,000
이민성	5,000
이상업	10,000
이상준	5,000
이상기	5,000
이양재	10,000
이연주	10,000
이영내	10,000
이영숙	5,000
이영환	5,000
이영휘	5,000
이윤범	10,000
이윤영	10,000
이윤관	5,000
이윤리	5,000
이종문	10,000
이종민	10,000
이종성	10,000
이주형	5,000
이지용	5,000
이진아	10,000
이진택	10,000
이창용	10,000
이찬권	10,000
이준상	10,000
이현택	10,000
이현숙	10,000
이희성	50,000
장라미아	10,000
장수필	5,000
장현재	10,000
전병희	10,000
전영길	10,000
전광수	5,000
정광식	5,000
정기운	10,000
정병현	30,000
정수조	10,000
정진과	10,000
정해일	5,000
정홍귀	10,000
조성택	20,000
조승훈	5,000
조용원	50,000
조우영	10,000
조주원	10,000
조지현	5,000
주승순	5,000
지태석	5,000
채송화	10,000
최경미	10,000
최규원	10,000
최기천	5,000
최석기	5,000
최성수	10,000
최양훈	20,000
최이찬	5,000
최재문	10,000
최정환	5,000
최종철	5,000
최준수	10,000
최지원	10,000
탁병삼	5,000
류덕용	20,000
류수빈	10,000
류연석	10,000
류영준	10,000
문성권	30,000
문주성	10,000
박강호	10,000
박경호	30,000
박계용	20,000
박계윤	10,000
박근희	30,000
박미경	30,000
박민욱	10,000
박상일	10,000
박성희	10,000
박은영	20,000
박은주	10,000
박재환	10,000
박정숙	30,000
박정식	10,000
박정화	20,000
박종근	10,000
박종원	20,000
박진우	20,000

관정생아리이재단	2,000,000
김강숙	10,000
김경란	10,000
김경틀	20,000
김경란	20,000
김경표	10,000
김정하	20,000
김광국	9,000
김근영	10,000
김근소	30,000
김나눔	10,000
김덕훈	20,000
김만호	20,000
김미순	10,000
김민범	10,000
김민재	30,000
김민희	10,000
김부도	20,000
김상현	10,000
김선숙	10,000
김선희	20,000
김성우	30,000
김승진	20,000
김애송(윤방원)	20,000
김강숙	20,000
김연욱	20,000
김영남	10,000
김영득	10,000
김영종	10,000
김옥수	20,000
김용재	10,000
김용화	5,000
김우종	20,000
김현섭	20,000
김은경	30,000
김자람	10,000
김장권	10,000
김정미	10,000
김정원	10,000
김정은	20,000
김정은	10,000
김정현	20,000
김정환	10,000
김제호	10,000
김종관	10,000
김종하	10,000
김주애	10,000
김지우	5,000
김진경	20,000
김진식	10,000
김태경	10,000
김태진	20,000
김태평	20,000
김태형	10,000
김학노	10,000
김향숙	30,000
김현수	10,000
김현정	10,000
김형관	30,000
김혜경	10,000
김혜경	10,000
김혜국	10,000
김희우	10,000
김종관	10,000
김종하	10,000
김태완	1,000
류덕용	20,000
류수빈	10,000
류연석	10,000
류영준	10,000
문성권	40,000
문주성	10,000
박강호	10,000
박경호	30,000
박계용	20,000
박계윤	10,000
박근희	30,000
박미경	30,000
박민욱	10,000
박상일	10,000
박성희	10,000
박은영	20,000
박은주	10,000
박재환	10,000
박정숙	30,000
박정식	10,000
박정화	20,000
박종근	10,000
박종원	20,000
박진우	20,000

박효균	10,000
박형준	30,000
박형준	20,000
박홍숙	30,000
방성환	10,000
배경이	10,000
배기만	20,000
배수진	10,000
박정은	10,000
변은경	10,000
서광의채널	5,000,000
서연우	10,000
사철원	30,000
설인혜	50,000
성현주	30,000
세마포아슬루션	20,000
손여주	10,000
손주현	200,000
송명옥	20,000
송윤석	10,000
송춘석	20,000
신대현	5,000
신상복	10,000
신순남	10,000
심승섭	10,000
심재규	10,000
심재원	10,000
심재현	10,000
안국식	10,000
안민식	10,000
안재형	10,000
안효진	30,000
알한식	20,000
알효철	5,000
오동일	30,000
오승현	10,000
오이경	10,000
오태정	10,000
오춘정	20,000
위용문	20,000
유근춘	100,000
유영팔	10,000
유영천	20,000
유성치	20,000
유승희	10,000
유연미	10,000
유하경	20,000
윤기홍	15,000
윤성진	10,000
윤여두	100,000
윤영선	50,000
윤지영	10,000
윤정현	30,000
윤지현	10,000
윤지현	30,000
윤혜정	10,000
이 규	10,000
이남희	20,000
이리나	5,000
이병국	30,000
이성준	20,000
이선정	10,000
이선호	20,000
이세은	10,000
이수구	10,000
이수정	10,000
이승현	20,000
이승현	10,000
이영동	10,000
이연수	10,000
이원수	10,000
이운재	10,000
이원배	100,000
이유혜	5,000
이일영	20,000
이일영	50,000
이재형	10,000
이재술	100,000
이정미	10,000
이정철	20,000
이정훈	10,000
이재현	10,000
이종욱	10,000
이종학	10,000
이진학	10,000
이재경	10,000
이재준	20,000
이희수	20,000
이희수	30,000
이화미	30,000
이현재	10,000
이현정	10,000
이현주	10,000
임현빈	5,000
임형주	10,000
임형주	10,000
정병식	10,000

전법권	10,000
전종수	60,000
정경순	10,000
정미혜	10,000
정성경	20,000
정성희	5,000
정수준	10,000
정영자	10,000
정영영	10,000
정정욱	30,000
정종별	20,000
정지혜	30,000
정창수	60,000
정태은	10,000
정현철	10,000
정혜숙	50,000
정혜인	10,000
정화인	10,000
정후진	10,000
정훈이	20,000
조은희	30,000
조재현	10,000
조정아	20,000
진관스님	5,000
진광숙	20,000
진홍순	10,000
채우혁	10,000
최기수	30,000
최성범	20,000
최숙희	30,000
최윤실	10,000
최재원	10,000
탁동녀	10,000
한계평의료문화재단	1,500,000
한국화학연구원	48,000
한기백	20,000
한덕섭	100,000
한동기	10,000
한동희	10,000
한애린	10,000
한원택	50,000
한인숙	10,000
한지섭	10,000
한창근	50,000
한하늘	10,000
허 설	10,000
하인동	10,000
한승남	10,000
한성스님	100,000
한성스님	50,000
한영자	30,000
황의중	10,000
황인선	10,000
황장권	10,000

불교그라드

강대군	10,000
공용택	50,000
김재기	10,000
김현미	50,000
나선정	5,000
방필호	20,000
신봉구	5,000
심만용	10,000
김대성	20,000
이한결	10,000
김대영	5,000
김대중	5,000
김덕희	10,000
김도규	20,000
김동엽	30,000
김동진	10,000
김동천	10,000
김동환	30,000
김만진	5,000
김만태	5,000
김병기	10,000
김명숙	30,000
김형희	10,000
김민곤	10,000
김민재	10,000
김병규	10,000
김영교	5,000
김영수	10,000
김영준	100,000
김성수	20,000
김상천	50,000
김상근	30,000
김상범	30,000
김복조	10,000
김성식	20,000
김성영	10,000
김성운	30,000
김성진	10,000

숨은천사	1,200
나이스가이	600
솔아진	700
두만강너머우리	2,943,800
조선록	2,056,400

해피빈

(주)대용파마텍	20,000
(주)리치스톤	5,000
(주)성광파워일렉트릭	20,000
(주)세진산업개발	100,000
(주)신도대아터통신	10,000
(주)여왕이아기	10,000
(주)창이앤지	30,000
(주)클린피에스엔	80,000
김복조	10

최지현	10,000	류연욱	20,000	이완수	10,000	공용택	20,000	김광평	25,000	김지선	20,000	박정란	10,000	임해준	10,000	이영주	10,000	전일순	10,000	최재태	20,000	김재준	5,000	정광수	5,000	김종관	10,000
탁병식	5,000	류수빈	10,000	이운정	10,000	김현미	50,000	김기원	10,000	김지영	10,000	박정수	10,000	왕희선	10,000	박정우	10,000	전정희	10,000	최재호	10,000	김장민	5,000	정광식	5,000	김종하	10,000
푸른초강교회	100,000	류연석	10,000	이원배	100,000			김기은	50,000	김지아	10,000	박정자	10,000	이용철	5,000	아영호	50,000	전정희	5,000	최정열	30,000	김장민	10,000	정기문	10,000	김주애	10,000
한성만	10,000	류영준	10,000	이유열	10,000			김진문	10,000	박종복	10,000		10,000	염기열	10,000	아영훈	20,000	전종수	20,000	최태지	5,000	김종비	5,000	장수조	10,000	김지우	5,000
문경숙	10,000	이은혜	40,000		5,000			김진백	20,000	박종훈	20,000			임용수	20,000	이재남	10,000	전재남	10,000	김팔선	20,000	김종영	5,000	김진경	20,000	김진경	20,000
하귀석	10,000	문성권	30,000	이달영	20,000			김진현	10,000	박주현	5,000			염규현	20,000	이봉선	30,000	전현미	35,000	최희순	20,000	김진태	20,000	정해열	5,000	김태경	10,000
하민석	5,000	문성욱	20,000	이달영	50,000			김진현	9,000	박지현	20,000			염규현	10,000	이봉선	30,000	전현미	5,000	최희순	10,000	김진태	10,000	정홍귀	10,000	김태진	20,000
홍성각	10,000	문운수	10,000	이재명	10,000			김창순	10,000	박지훈	10,000			염 철	50,000	이봉선	10,000	정경록	3,000	최희순	10,000	김창영	10,000	조성택	20,000	김태평	20,000
홍성근	20,000	박강호	10,000	이재술	100,000			김창영	10,000	박지호	10,000			염기열	10,000	아유영	20,000	장계현	10,000	주진배	5,000	김혁재	10,000	조승훈	5,000	김태영	10,000
황금철	20,000	박경호	30,000	이창미	10,000			김태순	20,000	박현민	10,000			오선영	5,000	이문식	10,000	장민아	10,000	한강아	3,000	김형순	20,000	조용원	50,000	김학노	10,000
황지중	5,000	박계용	20,000	이창철	20,000			김종기	50,000	박영중	30,000			오상수	20,000	이문학	10,000	정영준	20,000	한강식	20,000	김호식	10,000	조우영	10,000	김광호	30,000
황현택	20,000	박계용	10,000	이정훈	10,000			김학경	10,000	박혜연	50,000			오세호	10,000	이원욱	5,000	정미선	10,000	한강아	3,000	김형순	20,000	조우현	5,000	김현수	10,000
		박금희	30,000	이재현	10,000			김학성	10,000	박노혜	10,000			오소영	30,000	이종세	5,000	정 민	5,000	한노희	30,000	김호식	10,000	조지현	5,000	김현정	10,000
		박미경	30,000	이종섭	10,000			김학신	10,000	박희윤	10,000			오수경	5,000	이양덕	10,000	장병민	10,000	한다솔	5,000	문윤식	5,000	주승순	5,000	김경관	30,000
		박민욱	50,000	이종학	10,000			김 현	30,000	박지범	10,000			오수형	10,000	이양수	10,000	장삼모	10,000	한덕성	20,000	문태환	5,000	지태석	5,000	김해경	10,000
				이지운	10,000			김현석	10,000	방재만	5,000			오준희	10,000	이양재	50,000	장성원	10,000	한덕화	15,000	박귀순	10,000	채송화	10,000	김해경	10,000
				이창수	30,000			김현우	30,000	김동환	10,000			오형욱	10,000	이양영	50,000	장성호	20,000	한동학	10,000	박만숙	10,000	최규원	5,000	김태경	10,000
				이치수	30,000			김현우	10,000	배광우	10,000			오형욱	10,000	이양영	50,000	장성호	20,000	한동희	30,000	박미라	5,000	최기천	5,000	김하국	10,000
				박재규	20,000			이하수	5,000	김형재	100,000			오해근	10,000	배덕호	10,000	정수근	10,000	최석기	10,000	박미숙	10,000	최기우	5,000	남우주	10,000
				박재만	10,000			이창미	30,000	김형기	10,000			오해선	50,000	배소영	20,000	정수진	10,000	한성규	10,000	박연규	10,000	최상수	10,000	노민화	10,000
				박정숙	30,000			김형숙	30,000	김형숙	30,000			오화선	10,000	배수현	20,000	정수현	5,000	박용수	10,000	김정수	5,000	최광록	20,000	노승일	10,000
				이원정	10,000			김형희	10,000	김형희	10,000			왕성희	5,000	배정민	20,000	정민서	30,000	한서정	10,000	박용수	5,000	최광록	20,000	노태환	1,000
				이현주	10,000			김홍희	10,000	배광란	20,000			우성호	10,000	이정세	20,000	정영준	10,000	한승업	10,000	박인근	10,000	최재문	10,000	류덕용	20,000
				박종균	5,000			김호은	10,000	백낙서	10,000			원동우	10,000	이정수	10,000	정연정	10,000	한승업	10,000	박재호	10,000	최재환	5,000	류수민	10,000
				박종근	10,000			김효정	10,000	변승인	30,000			원종남	10,000	이정숙	10,000	정연정	30,000	한인숙	5,000	박종환	5,000	최종철	5,000	류연석	10,000
				박종원	20,000			김희곤	10,000	변선애	20,000			원호진	10,000	이정희	50,000	정영철	10,000	한정희	10,000	박주영	5,000	최종수	10,000	류영준	10,000
				박진우	20,000			김희년	10,000	변선식	10,000			유근호	30,000	이정열	10,000	정옥식	10,000	한준구	10,000	박태신	10,000	최지현	10,000	문경숙	40,000
				박표균	10,000			김희순	10,000	봉미란	10,000			유남길	20,000	이정수	10,000	정안식	10,000	한진욱	5,000	박종열	10,000	탁병식	5,000	문성권	30,000
				박형준	10,000			나선길	100,000	사기원	30,000			유명희	5,000	이정희	5,000	정안준	50,000	한창수	20,000	서민원	5,000	푸른초강교회	100,000	문성숙	20,000
				권익산	10,000			유승주	30,000	서동하	20,000			유승주	5,000	이정현	30,000	서해경	10,000	한성민	10,000	서해경	5,000	문성수	10,000	노성수	10,000
				박형준	10,000			나원영	20,000	서열호	20,000			유원희	10,000	이종만	20,000	장재국	20,000	함용운	5,000	성도경	10,000	함기문	10,000	박강호	30,000
				박정민	10,000			나은우	20,000	서민희	10,000			유용숙	5,000	이정호	10,000	정종태	10,000	허귀석	10,000	성환호	5,000	박경호	10,000	박계용	20,000
				박수진	10,000			나창윤	20,000	사호희	10,000			유재진	10,000	이종호	10,000	장지영	20,000	허정	10,000	송상국	10,000	하민석	5,000	박계용	10,000
				박정자	10,000			남미림	20,000	사연우	10,000			유정숙	20,000	아준동	10,000	장지영	10,000	한태영(문태대리점)	10,000	송기무	10,000	홍성각	10,000	박계용	20,000
				박정연	10,000			남상돈	10,000	사육주	20,000			유지수	8,500	이지원	20,000	장진영	10,000	현유식	10,000	송민규	5,000	홍성근	20,000	박금희	30,000
				박정국	30,000			남세원	10,000	사정숙	10,000			유진상	10,000	이지은	10,000	장진광	10,000	현유식	10,000	송민규	10,000	황금철	20,000	박동식	2,000
				박정훈	20,000			남정현	10,000	서희정	10,000			유평애스시스템(주)	30,000	이지하	5,000	장한성	5,000	현윤애	10,000	송민수	5,000	황지중	5,000	박미경	30,000
				박지혜	30,000			노관숙	10,000	석지훈,석지훈	10,000			윤광운	5,000	이진권	10,000	정해문	10,000	현종운	40,000	신병수	10,000	황현택	20,000	박민욱	50,000
				박정수	60,000			윤미지	10,000	석지훈	5,000			윤미지	10,000	이진우	10,000	정현근	10,000	한서정	20,000	안서윤	10,000	박상일	10,000	박상일	10,000
				박정태	10,000			노인선	20,000	석진희	10,000			윤병현	10,000	이정훈	10,000	정홍삼	10,000	호영진	15,000	안현석	5,000	박은주	10,000	박은주	10,000
				박정현	10,000			노정환	20,000	성나준	5,000			윤서영	5,000	이정재	20,000	정희범	10,000	홍구표	30,000	양기주	10,000				
				박정숙	50,000			노제순	10,000	성열찬	10,000			윤성진	10,000	이정희	50,000	조기봉	55,710	홍기록	10,000	양재원	10,000				
				박정인	10,000			노준봉	5,000	이태주	10,000			윤승림	50,000	이태주	10,000	이태주	20,000	홍미옥	30,000	양태주	10,000				
				박정인	10,000			노준근	20,000	이 항	10,000			윤서원	10,000	이 항	10,000	조두연	30,000	홍상문	5,000	영의료재단	10,000				
				박정수	10,000			노정현	10,000	조만용	20,000			윤영복	5,000	이현숙	100,000	조만용	5,000	오명섭	5,000						
				박정수	10,000			노정현	10,000	조민지	20,000			윤재희	10,000	이현우	50,000	조민지	20,000	홍성근	10,000	오현광	5,000				
				박정수	10,000			노정현	10,000	조봉현	20,000			윤정숙	10,000	이현정	10,000	조봉현	20,000	홍숙희	20,000	육용록	30,000				
				박정수	10,000			노정현	10,000	조석희	10,000			윤준원	10,000	이현정	10,000	조석희	10,000	홍윤정	10,000	오강민	5,000				
				박정수	10,000			노정현	10,000	조선아	10,000			윤지열	10,000	이혜경	10,000	조선아	10,000	홍재표	10,000	우광택	50,000				
				박정수	10,000			노정현	10,000	조성호	5,000			윤창섭	10,000	이혜란	10,000	조성호	20,000	홍준호	10,000	원형초	10,000				
				박정수	10,000			노정현	10,000	조승희	10,000			이강기	50,000	이혜숙	10,000	조승희	10,000	홍준희	10,000	우덕초	5,000				
				박정수	10,000			노정현	10,000	조영성	30,000			이강희	5,000	이혜숙	30,000	조영성	10,000	홍정현	10,000	유미경	10,000				
				박정수	10,000			노정현	10,000	조영성	10,000			이경미	5,000	이혜원	10,000	조영성	10,000	홍현선	10,000	유방용	5,000				
				박정수	10,000			노정현	10,000	조영성	5,000			이경재	10,000	이혜정	10,000	조영성	10,000	화선근건	20,000	유재욱	10,000				
				박정수	10,000			노정현	10,000	조영성	20,000			이근태	10,000	이홍우	20,000	조영성	10,000	황계원	100,000	유재호	10,000				
	</																										

유하경	20,000	한인숙	10,000	금희식	30,000	김정미	10,000	박미란	10,000	삼나리	10,000	이상복	10,000	장민환	30,000	차한애	10,000	강혜영	5,000	이성기	5,000	김부도	20,000	송용석	10,000	조은희	30,000
윤지홍	15,000	한지섬	10,000	기나영	5,000	김정수	20,000	박병우	10,000	삼말선	10,000	이상재	10,000	장보령	20,000	차영철	20,000	강혜림	10,000	이영재	10,000	김상현	10,000	송춘섭	20,000	조재현	10,000
윤성진	10,000	한창근	50,000	김기관	10,000	김정호	10,000	박병우	10,000	심현희	10,000	이상학	10,000	장사익	10,000	채광철	10,000	고영한	10,000	이연주	10,000	김선숙	10,000	신대현	5,000	조정아	20,000
윤여두	100,000	한하늬	10,000	김미성	10,000	김정호	10,000	박병진	10,000	안명화	20,000	이상호	10,000	장선영	15,000	채보미	5,000	고지영	10,000	이영내	10,000	김선희	20,000	신상복	10,000	진란스님	5,000
윤영선	50,000	허 설	10,000	갈창배	10,000	김정인	20,000	박병영	10,000	안상화	5,000	이상훈	10,000	장순천	10,000	채승이	10,000	공지현	10,000	이영숙	5,000	김성우	30,000	신순남	10,000	신광수	20,000
윤자경	10,000	하인웅	10,000	김갑식	30,000	김종갑	20,000	박성욱	50,000	안세봉	20,000	이석용	10,000	장영준	10,000	전진배	20,000	곽영한	10,000	이영환	5,000	김승진	20,000	심승섭	10,000	신용순	10,000
윤정현	30,000	원종스님	10,000	김경태	10,000	김종국	10,000	박성길	20,000	안영숙	5,000	이 선	10,000	장용성	10,000	이동배	20,000	구윤경	20,000	이영희	5,000	김매슬(윤병원)	20,000	심재구	10,000	차정혁	20,000
윤지인	10,000	환성스님	100,000	김계순	5,000	김종순	10,000	박석강	10,000	안정덕	5,000	이선규	10,000	장용준	10,000	최남건	10,000	김경남	10,000	이동범	10,000	김광수	20,000	심재우	10,000	채우혁	10,000
윤지현	20,000	환성스님	50,000	김관식	20,000	김종현	20,000	박선숙	5,000	안정식	10,000	이선호	5,000	장원석	10,000	최병희	20,000	김공현	5,000	이윤관	5,000	김연옥	20,000	심재정	10,000	최기수	30,000
윤정현	30,000	황영자	30,000	김관호	10,000	김종혁	10,000	박선오	30,000	안정훈	5,000	이성민	10,000	장우경	10,000	최병희	20,000	김공현	5,000	이윤관	5,000	김영남	10,000	안규식	10,000	최성범	20,000
윤혜정	10,000	황아중	10,000	김광아	20,000	김주영	50,000	박성기	40,000	안종금	5,000	이성수	5,000	장윤진	5,000	최사라	10,000	김 구	10,000	이종민	5,000	김영득	10,000	안민식	10,000	최소희	20,000
이남희	20,000	황인선	10,000	김광열	10,000	김주완	10,000	박성은	30,000	안종출	5,000	이성주	10,000	장은하	10,000	최세문	20,000	김규진	5,000	이종문	10,000	김영종	10,000	안재형	10,000	최은실	10,000
이리나	5,000	황창권	10,000	김광진	10,000	김주태	5,000	박소희	10,000	안준상	40,000	이성호	5,000	장재영	10,000	최소옥	10,000	김근섭	20,000	이종민	10,000	김옥수	20,000	안효진	30,000	최은정	30,000
이병국	30,000			김근우	30,000	김주혁	10,000	박 순	10,000	양관승	20,000	박 수연	20,000	장주혜	10,000	최순호	10,000	김근수	10,000	이종성	10,000	김용재	10,000	양한식	20,000	최재원	10,000
이성준	20,000			김금순·이호준	30,000	김주홍	10,000	박순성	10,000	양근성	10,000	이숙희	5,000	장춘용	10,000	최소희	10,000	김기근	5,000	이주형	5,000	김우홍	5,000	양효정	5,000	최태희	10,000
이선장	10,000			김대균	10,000	김기원	10,000	박애스더	50,000	양문수	10,000	이승곤	20,000	장현수	10,000	최석덕	10,000	김기동	10,000	이지용	5,000	김우홍	20,000	오동일	30,000	탁종녀	10,000
이선호	20,000			김대균	10,000	김기원	10,000	박영근	20,000	양미아	20,000	이승연	20,000	장환민	10,000	최영림	10,000	김기정	10,000	이진아	10,000	김원성	20,000	오승현	10,000	한재홍(윤봉재단)	1,500,000
이세은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원규	10,000	양승환	10,000	이승우	20,000	장근재	10,000	최영희	10,000	김동우	10,000	이진탁	10,000	김은경	30,000	오이경	10,000	한국화학연구원	38,000
이수구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성	10,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
이수정	10,000			김대균	10,000	김기만	10,000	박유종	10,000	양우정	2,000	이승환	10,000	전달수	20,000	최우정	10,000	김두환	10,000	이창용	10,000	김자람	10,000	오태정	10,000	한기백	20,000</